

남원 흥부제 오늘 개막

흥부가족상 시상식·불꽃놀이·축하공연 등 펼쳐... 축제는 21일 까지

남원흥부제전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19일 사립의 광장 일원에서 제26회 흥부제 개막식을 갖고 21일까지 3일간 흥이 넘치는 한마당을 펼친다. 흥부제는 '우에 나눈 보은 행운'을 주제로 진행되며, 19일 저녁 6시 30분에는 기념식을 갖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시민에게 주는 '남원 시민의 장'과 우애와 사랑의 '흥부가족상' 시상식이 열린다.



저녁 7시 40분부터는 흥부제 시작을 알리는 불꽃놀이가 요천둔치에서 펼쳐지며, 올해의 불꽃놀이는 예년보다 더욱 화려한 모습으로 가을밤하늘을 수놓으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 축하공연에는 인기 가수 더보이즈, 노리조, 남진, 박상철, 김용임, 카밀라 등이 출연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20일 저녁 7시 흥부樂놀부樂 한마당에서는 한영애, 자전거 탄 풍경, 소리새 등의 가수들이 펼치는 가을밤 콘서트가 열려 7080세대에게는 그 시절의 향수를, 20~30대에게는 가을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안겨 줄 것이다.

마지막 날 오후 2시에는 흥부전이나 남원을 떠올리는 복면, 가면 등 개성 있는 모습으로 남치는 가을 뽀빠이 있는 무대인 시민이 만드는 '흥부가왕' 노래경연이 펼쳐지며, 참가자에게는 흥부제 마당에서 운영하는 알뜰장터, 먹거리장터, 푸드트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흥부제 상품권이 주어진다. 또한 관광단지 주차장 흥부장터에서는 알뜰장터와 막걸리 추어탕부스, 푸드트럭이 풍성한 먹거리를 준비할 뿐 아니라 흥 넘치고 익살맞은 풍자 공연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연계행사로 흥부의 나눔정신을 재현하는 흥부사랑 떡 나눔 행사, 남원지역 예술가들의 사진 그림 전시 및 공연행사인 남원예술제, 각 읍면동 농악단의 흥을 겨루는 흥부골 남원농악경연대회, 남원국제도예캠프, 금과 강도근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등이 마련되어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오늘 순창 장류축제 개막

21일까지 소스박람회와 병행

제13회 순창장류축제와 2018 순창세계발효소스박람회가 19일 광파르를 울린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는 장류축제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고추장민속마을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경연, 체험, 전시, 판매 등 8개 분야 61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즐길거리와 체험거리를 준비했다. 특히 2018인분 고추장 떡볶이 파티, 장류주먹밥 모자이크 만들기, 2018인분 고추장 비빔밥 만들기 등 참여형 콘텐츠가 가득해 가족단위 관광객의 참여를 한껏 끌어올릴 전망이다.

또한 2018 순창세계발효소스박람회는 기업홍보관, 이벤트관, 풍이공원 등을 준비해 눈길을 모은다. 기업홍보관에서는 국내 28개 기업과 해외 10여개 기업이 참가해 42개 부스를 운영한다. 관광객들에게 전세계의 다양한 소스를 맛볼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장 주무대에서 비마미로 유명한 이해정 셰프의 '순창 토마토 발효고추장을 활용한 마법소스'를 만드는 과정을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해 관객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황수주 순창군수는 "올해는 장류축제와 소스박람회를 동시 개막해 다양



한 콘텐츠를 준비한 만큼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 또한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장류축제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발효소스 순창의 힘찬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식품산업 미래발전 구축

2019-2023년 5개년 계획 농정비전·방향... 로드맵 구체화

임실군은 각 분야 민간단체 대표들과 공무원 등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18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2015년에 처음 수립한

후, 2번째 농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주목할 내용은 농업직불제 제도 개편,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인 지역단위 푸드플랜, 4차산업혁명과 농산업, 농촌소화 정책, 정부와 지자체 간

농촌계획협약을 통한 일괄지원방식 등 정부의 핵심정책 흐름에 부합하는 지역전략을 수립 대응한다. 심민 군수는 "이번 농발계획 수립 시 민의(民意)를 제대로 반영해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구현"해 달라며 "계획수립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수립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순창 노인대학 수료식... 160여명 수료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고 심심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노인대학 수료식을 할 수 있어 매우 뿌듯합니다" 대학처럼 입가에 미소가 가득한 순창을 김모씨(76)의 말이다.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지회장 김봉호, 노인대학장 최일천)가 지난 18일 노인회관 3층 강당에서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기 노인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가 순창군의 지원을 받아 노래교실, 시인특강, 통일강연회, 웃음치료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 22일 개강해 매주 목요일마다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노인들의 배움터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김봉호 노인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100세대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면서 "노인대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특별상(노인회장상)에 김정애(금과면), 오귀례, 김정애, 김보임 등 4명이, 모범상(노인대학장상)에는 박종영, 신안자, 김옥금 등 3명이 수상했으며, 이외에도 개근상, 정근상, 봉사상 등 총 3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노인회는 노인대학 운영을 비롯, 노인재능나눔사업, 노인자율봉사 활동 지원,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이 18일 군청 회의실에서 통합방위태세 정기감사 강평회를 열었다.

임실군, 통합방위 강평회 개최

임실군은 지역 향토사단인 제35보병사단과 함께 18일 군청 회의실에서 임실군 통합방위태세 정기감사에 대한 강평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평회에는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해 제35보병사단 김대식 행정부사단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통합방위 정기간사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2018년 7733부대 예비군 정기간사 결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통합방위 감사에 대한 강평을 통해 지역향토방위를 위한 전투준비태세 유지 및 민·관·군 협조체계 유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심민 임실군수는 "평소 우리 지역의 향토방위 태세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들의 노고에 감사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군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더욱 더 견고한 향토방위태세 확립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 매아리

남원시, 국가예산사업

시민과 함께 발굴추진

남원시가 2020년 신규 국가예산 발굴을 위해 도내 최초로 공무원과 민간인이 참여하는 '남원 미래전략 발굴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7일 발대식을 가졌다.

남원시는 예년보다 일찍 국가예산 발굴을 시작하고 공무원 30여명과 민간인 10여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남원시가 미래전략 발굴 추진단을 구성한 것은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민간과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신규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추진단은 이날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특강과 간담회를 가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신규 국가사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시민들 생각과 아이디어를 듣고 남원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 사업을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시대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기를 요구하고 있다. 남원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래전략 발굴 추진단을 통해 남원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과 사업이 많이 발굴돼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과일 수확

병해충 관리 철저 당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차기년도 과일 풍년을 위해서는 수확 후 적절한 비료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농업인들에게 철저한 과원 관리를 당부했다.

올해처럼 봄철 냉해와 여름의 폭염 등으로 과수나무 수세가 평년과 달라 어느 때보다 동절기에 세심한 주의를 가져야 내년 농사에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과수 잎에서 합성된 동화양분은 수확 전에는 주로 과실이 자라는 데 사용되므로 낙엽성 병해를 지속적으로 방제 가능한 잎을 오랫동안 달고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과세가 약해져 있는 나무의 영양 상태를 확인한 후 필요한 때에는 가을거름을 사용해야 하며, 과원에서 월동하는 까치벌레, 응애, 돌발해충 등을 미리 방제하거나 산란된 알을 제거해 개체수를 줄이면 이듬해에 관리하는 것보다 두세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